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10월 7일(월)

윤석열 대통령,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 참석

- 양국 관계 격상을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 의지 밝혀 -
- 경제협력 분야로 원전, 인프라, 공급망, 농업 분야 제시 -
- 양국 기업인 등 300여 명 참석, MOU 13건 체결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7, 월) 오후 필리핀 마닐라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오늘 행사에는 양국 경제인뿐만 아니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가장 먼저 수교를 맺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오랜 우방이자 혈맹임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올해가 한국과 필리핀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계기로 필리핀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에 체결된 <바탄 원전 타당성조사 MOU>를 계기로, 원전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필리핀과 원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두 번째로,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필리핀이 Build, Better, More(BBM)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은 필리핀의 중점 인프라 사업에 협력하고자 대외협력기금 EDCF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필리핀의 도로, 교량 등 인프라 확충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번째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필리핀은 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니켈 생산국인 점을 강조하면서 공급망에 있어 두 나라가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으며 이번 <핵심 원자재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양국은 핵심광물 탐사와 기술 개발, 원자재 공급망 중단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식량 안보에 관한 각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농약, 비료, 농기계 등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농기계 생산공단’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며 농기계 생산공단을 통해 필리핀의 환경과 작물에 적합한 농기계가 개발·보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등이, 필리핀에서는 ▲프레드릭 고 투자경제특별보좌관, ▲크리스티나 로케 통상산업부 장관 대행,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 회장, ▲라몬 앙 산 미구엘 회장, ▲사빈 아보이티스 아보이티스그룹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오늘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기관 간 총 13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체결된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끝>